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A Study on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설 문 원(Moon-Won Seol)**

목 차

- | | |
|-------------------------|----------------------|
| 1. 머리말 | 3.3 공동체 관점의 커뮤니티 기록화 |
| 2. 로컬리티 기록화의 이론적 논의 | 3.4 일상 및 전통 생활사의 기록화 |
| 2.1 주요 개념 | 3.5 분석 및 시사점 |
| 2.2 집단기억과 로컬리티 기록화 | 4. 로컬리티 기록화 방안 |
| 3.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 4.1 기록화 범주 |
| 3.1 지역사 전반의 포괄적 기록화 | 4.2 로컬리티 아카이브의 구축 |
| 3.2 도시·공간계획 관점의 지역 기록화 | 5. 맺음말 |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 내 기록유산기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Cox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한 접근방법을 4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특히 공간과 장소를 중심축으로 하는 기록화의 범주를 도출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로컬리티가 담긴 기록을 생산·수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방기록, 기록화 전략, 지역 기록화, 도큐멘테이션 전략, 로컬리티, 참여형 아카이브, 지역 기록화 모형, 집단기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methodologies for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reformulation the Cox's documentation model focused on cooperative acquisition of documentary heritage institutions.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s of locality, space and place, relation of collective memory to archives, and analyzes the four approaches of documentation comparatively. Based on these analyses, it suggests the categories of documenting locality, and the directions of archive portal design for collective memory of locality.

Keywords: local archives, community archives, documenting region, documentation strategy, locality, collective memory, participatory archives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H00006).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eol@pusan.ac.kr)

■ 접수일: 2011년 5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2일

1. 머리말

“아카이브의 역사는 상실의 역사이다.”(Burton 2001)

“기억까지는 아니라도 아카이브를 통제하지 않은 정권은 없다.”(Derrida 1996)

이러한 말들은 공공기록관리제도 안에서 남겨진 기록들이 당대인들의 기억과 경험을 드러내는 데에 얼마나 한계를 갖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기록의 가치가 그 사회의 본질을 미래에 전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면(Duranti), 아카이브는 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매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집단기억을 아카이브의 체계 속에 편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역의 민간기록과 공동체 기록을 관리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지방의 민간기록관리뿐만 아니라 소수 공동체나 주변부 집단의 아카이브 지원정책이 공공정책의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기록학자 Eric Ketelaar는 아카이브가 “기억의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of memory)”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기억을 기록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stories)를 공공 아카이브와 연계하는 정책과 정보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Ketelaar 2008).

집단기억의 기록화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과거사 규명의 일환으로 특히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지만 지역 기록관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아직 지방기록관리기관들의 설립이 부진한 가운데 공공기록의 관리를 넘어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주변부 집단의 기록 등 다양한 민간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하려는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험적으로 시도되는 사례도 있다. 사라져가거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역사, 경관,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려는 노력, 소외된 민중들의 생활을 기록으로 복원하려는 시도 등이 그 사례이다. 특히 현재 공공기록으로 존재하는 지방기록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집단기억 기록화를 강조하는 로컬리티의 기록화는 지방기록관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로컬리티 기록화는 미국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이론에 근거하여 Richard Cox 등이 제시한 방법론이지만 본고에서는 지역 내 기록유산기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Cox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로컬리티 기록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특히 공간과 장소를 중심축으로 하는 기록화의 범주를 도출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로컬리티가 담긴 기록을 생산·수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로컬리티 기록화의 이론적 논의

2.1 주요 개념

2.1.1 로컬리티의 기록화

‘기록화(documenting)’란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활동과 역사를 기록으로 재구성할 있도록 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집·생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집 생산의 결과는 조직 활동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기록집합체가 아닌 인위적인 기록컬렉션(manuscript collection)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컬리티 기록화(documenting locality)’는 Richard Cox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지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Cox는 로컬리티를 “문화적이거나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기타 이유로 개개인이 동질성을 느끼는(이웃에서 카운티나 시,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지리적 영역”(Cox 1996, 9)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로컬’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로컬리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로컬리티 기록화’가 지방기록의 수집이나 관리를 의미하는 일종의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기록의 수집이나 지역기록의 관리 대신 ‘로컬리티 기록화’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는 로컬리티가 로컬과는 다르고,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역 정체성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로컬리티는 분야나 연구자별로 개념 규정에 편차를 보인다. 양홍숙(2010, 21)은 “특정의 지리적 공간을 토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산물, 즉 언어·역사·문화·제도 등 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로컬리티를 ‘지역성’이라는 용어로 대신할 수도 있겠지만, 박규택(2009, 159)은 로컬리티 담론이 “지역성이 내포하는 근대적 담론에서 벗어나 탈근대적 사유를 중시하며, 보편성과 전체성을 지양하고 개체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들면서, 로컬리티를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로컬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변화”하는 개념으로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단’에 의하면 로컬리티는 “로컬이 지니고 있는 가치 혹은 속성”이며 여기서 가치는 정체성 혹은 주변화가 지니는 에너지 등으로 이야기 한다(차철욱 2011, 3). 차철욱(2011, 3)은 지역의 정체성이 물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로컬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을 읽어낼 필요가 있고, 인간의 경험은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로컬리티를 기록화한다는 것은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증거할 수 있는 기록의 수집 및 생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체 내적 정체성 추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¹⁾ 특히 이러한 부분은 공공기록이 제대로 포괄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 글에서 로컬 아카이브가 아니라 로컬리티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이유도 ‘객관적’으로 지역의 기록을 ‘대표’할 수 있는 기록의 수집과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2.1.2 공간과 장소

인문지리학에서는 개인 경험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공간과 장소를 구분한다. 이 푸 투안은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라고 정리했다(이 푸 투안 2005, 19). 즉, 공간이 개념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라면 장소는 경험의 차원에 근접해 있으며, 공간이 넓은 경우에 공간이 장소가 되려면 개념을 만드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운동감각적 경험 및 인지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푸 투안 2005, 124). 즉, 공간이 추상적 개념이라면 장소는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공간에 해당한다. 특정한 공간이 그곳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해석될 때, 그러한 곳을 장소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심재휘 2011).

따라서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활동은 곧 공간 자체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기록하는 것과 함께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소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이러한 장소의 정체성이 “도시나 경관의 물리적 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눈·마음·의도 속에도 존재”하

며, 개개인이 모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특정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체성은 상호 주관적으로 결합되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본다. 렐프는 이와 같이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장소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렐프 2005, 108-109).

이러한 개념들에 입각해 볼 때 로컬리티 기록화의 범주에는 공간이나 장소의 물리적 변화 이력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각종 정책과 사건 뿐만 아니라 장소를 경험한 사람들과 집단, 이들의 장소 경험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2.2 집단기억과 로컬리티 기록화

집단기억이란 어떤 집단이나 민족이 공통으로 겪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경험으로 이를 직접 체험한 개개인의 생애를 넘어 집단으로 보존되고 기억되는 것을 말한다. 아카이브는 개별 기록들의 집합체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집단기억으로 보기도 한다. 기록관리 및 아카이빙 과정은 집단기억을 담는 역할을 하는 넓은 범주의 기록관리체계 안에 개별 기록을 배치함으로써 기록이 한 조직이나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도록 한다. 다시 말해 아카이브를 통해 ‘나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 관한 증거’, 즉 집단기억의 구성요소로 변환하게 된다(Mckemmish 2005, 13). Frank Upward의 기록연속체 모형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읽을 수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기록이 만들어지고 개

1) 정체성은 집단의 내적 정체성(공동체의 정체성)과 외적 정체성(외부에서의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로컬리티 담론에서는 내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별 기록이 기록집합체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흔적이거나 개개인의 기억이 집단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카이브의 역사는 기억의 역사인 동시에 망각과 상실의 역사이기도 하다(Antoinette Burton 2001; Cunningham 2005에서 재인용). 보존할 기록을 선별하는 행위는 남길 것과 남기지 않을 기억을 선택·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오랜 기간 동안 아카이브는 통치자들에게 권력의 유용한 원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Piggot이나 Hedstrom과 같은 기록학자들은 아카이브와 집단기억의 관계가 직접적이거나 명료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지적하지만(Joias 2011), 아키비스트들이 기록을 이관받기 이전에 보존할 기록을 평가·선별하고, 이후 기술·보존함으로써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아카이브는 집단기억,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개인, 집단, 사회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다수이다(Schwartz and Cook 2002).

아카이브와 권력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에서는 집단기억과 아카이브의 관계를 꾸준히 다뤄왔다고 볼 수 있으며, Josias(2011)는 남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집단기억이 아카이브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남아프리카에서 공공 기록관리시스템에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기록이 어떻게 남겨졌으며, 차별정책 종식 이후 집단기억의 사회적 재구성을 위해서 아카이브, 박물관, 기타 기억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Bastian(2003)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사례로 한 논문에서 식민통치가 끝나고 대부분의 공식 기록이 모두 미국과 덴마크 국립기록관으로 옮겨진 환경에서 지역

사회가 집단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Josias 2011에서 재인용). 2003년 논문을 이은 2009년 논문에서 Bastian은 탈식민지사회에서 아카이브를 남기려면 아키비스트들은 그 사회의 주변부와 주목받지 못하는 커뮤니티의 기록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축제를 집단기억을 남기는데 기여할 '살아있는 문화 아카이브'로 보았다(Bastian 2009, 115; Josias 2011에서 재인용).

아카이브와 집단기억의 연계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거론되는데, 첫째, 평가·선별을 포함한 기록관리과정이 집단기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둘째, 집단기억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포괄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는 차원이다(Josias 2011).

집단기억과 관련한 아카이브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로컬리티 기록화에 던지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컬리티 기록화는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공동체)'과 '장소'에 대한 기억을 능동적으로 남길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아카이브가 기록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단순히 불러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나아가 지역의 주체들이 '장소'를 축으로 '스스로' 기록을 수집·생산하고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지역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이에 덧붙여 기억의 영역에 남겨진 경험을 기록으로 생산하는 작업을 통해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가 자신들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이들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

리한 집단기억은 역사교육이나 대중매체, 문학과 예술 등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올릭 2011). 이동후(2002, 73)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나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재해석하며 이른바 사람들의 ‘집단기억’의 형성을 돕는 것”이며 “단순히 과거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억의 형태와 내용을 조건짓는 하나의 맥락으로서, 과거에 대한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기억을 매개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제시한 바 있다(이동후 2002, 73). 아카이브는 이보다 훨씬 열린 틀에서 개개인의 기억을 일차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아카이브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집단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데, 가령 영국의 ‘Moving Here’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는 영국의 이민자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뿌리 및 이민 정착기와 관련된 기록을 올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생산하며, 이러한 기록과 스토리 콘텐츠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 활동을 통해 집단기억이 축적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집단기억을 개발·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또한 고려할 부분은 ‘오늘’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아카이브 관점은 아니지만 장소나 공간에 대한 ‘진행형 기억’을 기록화하는 작업은 인터넷 포털이나 SNS를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 맵을 이용하여 장소에 대한 경험을 사진 및 간단한 글과 사진을 이용하여 올리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국립기록청(NARA)은 위치

기반 SNS를 활용하여 특정 공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기록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경험이 덧붙여지면 새로운 기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경험을 기록으로 획득하고 이를 보존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인터넷 소통방식과 다양한 기록형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이 다양한 전자형식의 사적 기록을 수집·보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eMANUSCRIPTS(eMSS)와 같은 사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로컬리티 기록화는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목적에 따라 기록화의 대상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된 연구 및 프로젝트들을 그 성격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첫째, 지역 전반의 포괄적 기록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이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출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지역에 적용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도시개발 및 공간계획 관점의 지역 기록화이다. 급격히 변화하거나 사라져가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사진 기록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이나 도시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남기려는 사업들도 있다. ‘사라져가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원주민의 경험과 기억을 남기려는 역사·문화적 관점에 입각한 기록화 운동도 있다.

셋째, 지역 공동체 관점의 기록화이다. 특정 지역에 자리 잡게 된 공동체들의 집단기억을 기록화하려는 사업은 이주민들이 많은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화를 추진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아카이브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주변부 집단이 주체가 되는 생활사 기록화이다.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가 대표적이다. 한국 개항장과 그 배후도시, 근대교통수단의 요충지를 대상으로 한국 근현대 민중의 생활문화 기록을 수집하고 구술사 생산을 통해 “역사를 남기지 못한 한국 민중들의 생활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김주관 2006). 물론 공간보다는 개별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간 및 장소와의 연계성을 가진 기록들이 산출되었으며, 이밖에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사를 기록하는 접근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전통생활사의 기록화이다. 이는 민속아카이브와 관련된 흐름으로서 오래된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민속 관련 기록을 수집 보존하거나 전통생활과 관련된 구술을 채록하는 방식으로 기록화가 이루어진다.²⁾

물론 이러한 접근법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기록화 사업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함께 적용할 수 있겠지만, 사업의 중심이 되는 기초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접근법의 특징과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지역사 전반의 포괄적 기록화

서구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따라 추진된 지역 기록화 사업들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공간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록화를 시도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 ‘지역’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그 역사와 흐름을 기록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기록을 능동적으로 수집·생산하는 전략이며, 이는 개별 기관 중심 기록화의 협소함을 보완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설문원 2010).

로컬리티 기록화는 “보존을 위해 선별된 기록들이 커뮤니티의 과거와 현재의 본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상징하며, 연구자들이 이 기록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Cox 1996, 112). 커뮤니티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Cox는 15개의 토픽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농업, △예술과 건축, △사업·산업·제조업, △교육, △환경문제·자연자원, △노동, △의료·보건, △국방, △정치·정부·법, △인구, △레크리에이션·여가, △종교, △과학·기술, △사회조직·커뮤니케이션, △교통·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Cox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설 명책임성 충족을 위한 기록보다 훨씬 범위가 넓거나 범주가 다른 기록을 수집·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Cox 1996, 132-133).

2) 마을 및 민속아카이브는 함한희 등(2008)을 참조.

Cox는 지역을 충분히 기록화하려면 지역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핵심증거가 담긴 기록 일체(증거적), 생산기관이 증거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기록 외에 연구자들에게 가치가 있는 기록 일체(정보적), 특정 시기 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람이나 조직의 활동, 사건, 경향 등에 관한 선별된 기록(대표적), 미래의 연구자들에게 특정 시기의 사회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기록(포괄적)을 필요로 한다고 정리하였다(Cox 1996; 설문원 2010에서 재인용).

지역에 적용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설문원 2010; Brothman 1999). 첫째, 지역의 여러 분야와 여러 부문을 포괄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야별 전문가, 기록 생산자, 아키비스트, 이용자 집단, 활동가 등이 포함된다. 둘째, 기록화 범주와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프로젝트팀은 대상 지역의 주요 이슈와 활동을 규명함으로써 기록화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집된 기록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지역의 주요 이슈와 활동을 충분히 담은(document) 수 있는 기록유형을 능동적으로 규명한다. 넷째, 지역 내 기록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 기록물 소장기관들이 기관 차원의 협력을 토대로 수집 정책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협력기관들은 기록물에 대한 표준화된 검색도구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종합 목록 및 기술 생산, 참고서비스 제공에도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으로는 Richard Cox에 의해 널리 알려진 서부 뉴욕 기록화 프로젝트와 대도시 밀워키 기록화 프로젝트가 있

다. 서부 뉴욕을 기록화하기 위한 사업은 1986년에서 1988년까지 추진되었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수 기관에 대한 기록조사와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완전히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Cox는 서부 뉴욕의 모든 활동을 기록화한다는 목표가 비현실적이었고, 기록화의 범위가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념의 한계를 넘어섰다면 이 프로젝트를 실패로 결론지었다(설문원 2010에서 재인용).

밀워키 프로젝트는 도시 환경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이다. 첫 해에는 지역 내 기록관들의 협력적 수집을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 수집정책을 수정하도록 하였고, 소장 기록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차년도에는 분야별 주제전문가가 목록 기록을 평가한 후 기록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역시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참여기관에 부과된 기술 작성업무가 과다했고, 이들 기록관들이 도시 전체의 수집전략에 맞추어 자관의 수집 정책을 수정할 적극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사업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종료되었다(설문원 2010).

전략의 실행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관'과 같이 출처로 규정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기록의 수집과 기록화 활동의 범위를 정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도큐멘테이션 전략 역시 모든 기준의 선정을 프로젝트팀이나 자문단에 맡겨둔다는 방식이어서 이러한 절차만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인력과

재원의 문제이다. 헌신적인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팀을 구성하여 유지하기 어렵고, 그러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Brothman 1999).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Brothman(1999)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해서 도큐멘테이션 전략보다 더 나은 접근법은 없으며, 적어도 사라져가거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장소를 자신들이 재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아 기록화 할 때 유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판들을 로컬리티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기록관리나 조직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로컬리티 기록화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역 밖에 존재하는 객관성과 중립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록화 대상을 출처나 기관의 기능 평가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근거라고 볼 수도 없다.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Jimerson 2003)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객관적 기준에서는 배제될 수 있는, 주변적이고 개별화된 기억의 기록화가 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같이 사후적이고 의도적인 기록화 방법론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내부자의 시각에 입각하여 그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인물, 장소를 선별하는 매우 '주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로컬리티 관점에서 보면 더욱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로

컬리티 기록화가 공공기록관리기관들이 관리하는 공공기록물 집합체를 보완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이는 캐나다 국립기록물관리기관이 제안한 '토탈 아카이브(total archives)' 개념과 유사한 접근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Brothman 1999, 156).³⁾

인력 및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뉴욕이나 밀워키와 같이 아키비스트나 사서가 주도한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는 구성원들의 헌신성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록화에 가장 헌신적일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내부자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이다(Johnston 참조). 따라서 뉴욕이나 밀워키 프로젝트에서처럼 지역 내 협력기관의 사서나 아키비스트가 중심이 되어 협력적 수집을 추진하는 방식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기록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공공기록관리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구축된 기록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소규모로 시작하여 로컬리티 기록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특히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주류 기억이 아닌 대항 기억을 기록화하는 데 장점을 발휘하는 만큼 소규모로 내부자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내 기록물 소장기관들의 협력을 토대로

3) Brothman(1999, 156)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분석적, 계획적, 협력적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국립 아카이브가 제시한 '토탈 아카이브(total archives)' 및 '기록 상보성(records complementarity)' 개념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록의 협력적인 수집’에 중점을 두는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실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관 간 협력은 지역기록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연계를 가능케 하는 게이트웨이나 아카이브 포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⁴⁾

3.2 도시·공간계획 관점의 지역 기록화

최근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록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신도시 건설이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상지역의 역사 문화적 단절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유광흠 등 2008, 43).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져가거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공간을 기록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사업들로는 광고 신도시 개발지, 종로 피맛골, 인천 차이나타운 기록화 시범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 광고신도시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면 철거될 지역과 공간에 대해 “원주민들이 공간에 대한 역사와 추억을 간직하도록 돕고,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지속성이 구현된 신도시를 조성”⁵⁾한다는 목표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고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던 경기

도시공사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사라져버릴 자연의 흔적과 삶의 흔적을 기록으로 발굴, 정리”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3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광고신도시 개발조성 전의 민속, 문화, 생태 및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2008년 『지감보감(地感寶鑑)』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⁶⁾ 여기에는 생활사 유물 134종 5백50여 점, 사진 6천여 점, 동영상 3시간 20분 분량, 소리음원 2시간 분량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존하고 아울러 이를 전시 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원주민의 삶의 흔적을 예술소재로 승화시켜 원주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시킨다는 의지도 표명되었다(경기도시공사 2008). 이밖에도 경기도 만안구 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진기록화 프로젝트가 추진된 바 있다(박주석 2010). 그러나 전적으로 외부인의 시각으로 수집되어 이름답게 포장된 기록들이 개발 이전의 공간과 원주민들의 장소 경험과 기억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기록화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록화 사업이 단순히 신도시 개발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는 개발을 추진하

4) Brothman(1999)은 정보기술이 로컬리티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상 공동체와 공동체 네트워크 등도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고려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는 이른바 메타 아카이브(meta archives)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아카이브 게이트웨이나 포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http://www.gico.or.kr/introduction/pr/news/news01_01.jsp?mode=view&num=116>. [cited 2011. 5. 4].
 6) 지감은 영어 amenity를 번역한 말로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 혹은 그러한 환경(자연환경·사회환경)을 이르는 뜻.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cited 2011. 5. 4].
 <<http://www.gico.or.kr>>.

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장소의 역사성을 살린 도심부 재개발을 위해서는 재개발 이전의 역사적 공간의 모습에 대한 적절한 기록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록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일부 신도시나 뉴타운 개발대상지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화 사업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유광흠 등 2008).

동 연구소는 사라져가는 공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록화 방법론을 도출하고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실험을 위하여 종로구 청진동 피맛골을 대상으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사라져가는 역사공간에 대한 기록을 구축하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에 대한 3차원 기록, △장소에 대한 인문사회적 기록, △정책적/계획적 사항에 관한 기록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우선 공간이력 구축을 위해 연구문헌, 고지도, 기사, 정책 기록(관보, 시보, 토지이용계획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수집하고, 장소 경험 기록의 구축을 위하여 업소 주인, 해당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리적 환경의 기록화를 위해서는 VR 영상촬영, 3D 광대역 스캔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영상 구축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계획문서, 사진, 구술 기록 등의 1차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논문,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 수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축아카이브에서는 1차 자료가 중요함을 다

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어떤 건축도서에서 유명 건축가의 설계 도면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공문서 기록관에서 같은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의 준공 허가 관련 문서와 준공 도면의 원본이 있다면 이는 더욱 더 확실한 사실 증명이 될 것이다.” (유광흠 등 2008, 11)

또한 최근에는 건축이나 도시 만들기에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체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건축물 기록화를 위해서는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계획과정이나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알 수 있는 민간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유광흠 외 2008, 18).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건축·도시공간 기록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서울 도심부 등 공간의 역사적 기록 구축이 시급한 지역을 ‘(가칭) 장소 기록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현황에 대한 기록화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유광흠 등 2008, v).

엄수진, 박소현(2010)은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인천 차이나타운을 대상으로 마을 아카이브 시범 구축을 실시하였다.⁷⁾ 기록화 대상으로 선정한 인천 중구 선린동 일대(인천차이나타운)는 1884년 청국 조계지로 지정된 이후 중국인 밀집지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가지며, 독특한 문화역사 경관을 이루고 있고, 한국 화교의 정신적 고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리나 2001년 인천 중구청이 관광특구로 지정한 이후 여러 재개발사업으로 마을의 경관이 급격히 변형되고 있으며, 물리적 계획의 상당부분이 기록의 부족으로 문화적 왜곡이 심각한 실정이었다(엄수진, 박소현 2010, 263). 인천차이나타운의 화교사회가 오랫동안 한국의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그 공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마을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기록화가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자료는 지도, 관광책자 사진, 연구자료, 언론 보도, 전시회자료, 문학작품, 인터뷰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1884년 무렵 작성된 지도에서부터 90년대 초반 재개발계획이 조성되기 시작한 이후 여러 공문서에 나타난 지도 등 공간기록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자료는 건축물(주택, 학교, 종교건축, 상업건물), 가로(폐루길, 차이나타운1길, 차이나타운2길, 차이나타운3길, 뽕대이회길, 삼국지벽화길 등), 공터, 마을 일반적으로 분류하였고, 해당 자료가 전체 마을에서 갖는 공간적 참조점을 마을지도에 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마을아카이브를 “가로, 주택, 학교, 놀이터와 같은 일상적인 건축 환경과 관련된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유산 기록”으로 정의하고, 생활사 아카이브로서의 의미가 강한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비해 공간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한다(엄수진, 박소현 2010, 259). 특정 지역의 소외 현상이 심각하고, 빈번한 재개발로 도시나 마을의 역사

적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환경에서 마을 아카이브는 “공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며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역사적 서술”이 될 것이며, 로컬리티를 발굴하는 단서로서 문화역사마을가꾸기와 같은 마을공동체 설계에 구체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엄수진, 박소현 2010, 265-266).

사라져가는 공간에 대한 건축 및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기록화 사업들은 공간과 지역경험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 프레임워크와 공공 기록과 민간기록의 체계적인 결합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물리적 공간 환경에 대한 기록의 생산을 위하여 사진과 같은 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3D 동영상 등의 생산을 위해 첨단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치(지리)정보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특징도 갖는다.

그러나 대체로 일회적 사업을 통해, 내부 공동체와의 연계가 미약한 상태에서 기록화가 이루어졌고, 아직은 실험적이거나 기초 연구라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지역이나 공간 기록화에서는 개별 기록별 목록 작성에 앞서 기록의 맥락에 대한 기술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나 더블린코어와 같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기록건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사업에서와 같이 물리적 공간 기록의 생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경우 장기보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 사라져가는 공간의 기록화를 위해 개

7) 이 사업에서는 “마을 단위 문화유산의 기록화”의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구축과정에서는 마을의 문화유산 전반을 고려하기보다는 공간 및 도시계획 관점의 기록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마을 아카이브’로 보기는 어렵다.

인이나 단체의 활동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가들은 공간 및 장소 기록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⁸⁾ 이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이를 로컬리티 기록화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 공동체 관점의 커뮤니티 기록화

모든 인간사회를 특징짓는 현상 중 하나는 ‘문화 공동체로서의 자기보존(collective cultural self-preservation)’ 본능이며, 자신들의 문화, 업적,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하여 구술이나 글, 춤, 제례의식, 미술, 음악, 연극 등을 남긴다(Cunningham 2005). 그러나 제도화된 보존기록관리기관(archives)들에서는 사회의 주류가 아닌 소수 공동체나 주변화된 집단에 대한 기록의 수집·축적을 주요 업무로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공공영역에 포섭되지 않은 비주류 공동체들은 자긍심과 연대의식, 정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기록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며,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된다.

영국의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유산그룹(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이하 CAHG)은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유실될 자신들의 역사 이야기(내러티브)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풀뿌리 형식의 아카이브 개발을 지향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 소속감이 강화”된다고 본다.⁹⁾

사실 ‘커뮤니티’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다.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공통의 신념이나 가치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버 커뮤니티 등과 같이 가상공간에서 형성 유지되는 커뮤니티도 있다. Flinn은 커뮤니티 아카이브 운동과 관련하여 보다 실용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커뮤니티를 “로컬리티나 문화, 신념, 배경, 공유하는 정체성이나 관심사에 근거하여 자신들을 규정하는 집단”이라는 폭넓은 정의를 제안하였다(Flinn 2007, 153). 이렇게 커뮤니티가 지역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커뮤니티와 지역(장소)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렐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렐프, p.86).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해서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이 관계 속에서 경관은 공통된 믿음과 가치의 표출이자, 개인 상호 간의 관계 맺음의 표현이다.”

특히 영국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커

8) 가령 부산의 경우 해운대 달맞이고개 등 부산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화덕현 사진작가,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부산 길거리의 사람들의 표정을 찍어온 최민식 사진작가, 부산의 사라져가는 골목풍경을 담아내고 있는 김홍희 사진작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간 기억을 남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9)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category_idtxt_thissite.aspx> 참조. [cited 2011, 5. 5].

뮤니티 아카이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아카이브들은 대체로 지역공동체나 특정 관심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컬렉션이 구축되고 유지되며, 정부가 공공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서양에서 많은 커뮤니티 아카이브들은 오랜 이민역사를 토대로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다양한 사회공동체를 포용하는데에 역사적 기록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엄수진, 박소현 2010, 265-266). 최재희 역시 영국의 지역 아카이브 정책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최재희 2008).

영국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많이 생기게 된 것은 개인사와 가족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체성과 관련된 이러한 탐구는 지방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며, 그러한 탐구는 가족들이 살았던 공동체, 거리, 직장, 신성한 장소의 역사로 관심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다(Flinn 2007, 159). 이러한 관심을 배경으로 형성된 아카이브에 영국의 Heritage Lottery Fund는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들의 현재와 과거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기록유산을 확충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며, 특히 현대 기록유산의 결락과 부재를 메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Flinn 2007, 159). 이렇게 구축된 수천 개의 아카이브들을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CAHG)이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체 아카이브와 관련있는 사례로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의 아카이브를 들 수 있다. 성미산 마을은 1990년대 초반에 형성된 도시공동체로 다양한 실험적 운동과 대안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많은 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다(최윤진 2011). 아직은 관리의 체계성과 보존성, 활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커뮤니티 아카이브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만한 사업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정부 지원 농촌활성화사업 가운데 하나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문화 역사의 복원과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마을 현황조사, 특히 마을의 인문·사회적 현황에 대한 마을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수행된 마을조사의 내용은 대체로 공공시설의 현황과 공공서비스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엄수진 2010).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마을 주민의 생활사 기록의 생산·수집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굴된 자료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수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엄수진, 박소현은 마을아카이브가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 역사성, 접근성, 공유성을 든다. 역사성이 담긴 기록을 선별하고, 분산되어 존재

했던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디지털화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구성원 스스로가 이용자이자 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와 이용이 쉬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을 아카이브에 수집된 기록이 도시계획 등의 물리적 계획뿐 아니라 문화 및 교육적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밖에 우리 사회도 다문화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에스닉 미디어’¹⁰⁾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소통 및 정보공유와 함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함양하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장기적으로 아카이브 구축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3.4 일상 및 전통 생활사의 기록화

생활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생활의 반복과 순환을 포함하는 역사”를 의미한다(함한희 2008). 미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사연구의 일환으로 역사를 남기지 못한 일반인, 소외계층의 일상생활사 기록을 생산, 수집, 활용하는 몇몇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커뮤니티 아카이브도 평범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생활사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사 연구자들의 추진하는 기록화는 주로 구술생애사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차이를 갖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부터 추진된 민중생활사아카이브 구축사업이다. 민중생활사아카이브에는 연구자들이 전국에서 만난 약 500인의 생애사가 축적되어 있으며, 음성 및 동영상 형식의 기록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축적된 생애사 기록들을 지역별, 기록유형별 검색, 민중생활사 사전의 1천여 개 항목에 대한 브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¹⁾ 그러나 생활사 연구가 “문화기술적 역사를 추구하지만 한편으로 역사 본연의 임무인 인간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개인생애사를 “사회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 그리고 그 전체가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조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사를 “지역사, 한국사 또는 전체사와 연결”시켜 서술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함한희 2008, 32-33).

민중생활사 연구단에서는 이러한 생활사 서술을 위하여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연과 환경, 몸과 마음, 삶과 일, 놀이와 일, 가족과 이웃, 마을·고을·나라, 여성과 아동, 사람의 종류, 공간과 교류, 세월과 신세타령 등 열 가지의 영역이다(20세기민중생활사 연구단 2005 미발표자료; 함한희 2008, 21-25에서 재인용). 이 중 마을고을나라와 공간과 교류는 특히 로컬리티와 각별한 관련성을 갖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지연성과 공동체의식을 연구하는 ‘마을고을나라’ 영역에는 계·동창회·향우회와 같은 지연조직의 정체성과 존재방식, 작동원리,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식의

10)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 이주민방송(MNTV), 셀러드TV, 성서공동체라디오, 구미다문화공동체 방송국, 다문화가족음악방송 등이 있다.

11) <http://www.minjung20.org/new_archives/>. [cited 2011. 5. 22].

발현과정을 비롯하여 권력의 강제와 동원에 의한 국가와 개인의 관계 및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개인의 역사적 경험과 인식 등이 포함된다. '공간과 교류'영역에서는 한국의 근현대화가 생활공간의 외형과 의미까지 변화시켰다는 관점에서 자연환경과 교통입지의 변화, 철도와 항구의 설치로 인한 사람과 물류의 이동 양태 변화, 새마을운동에 의한 근현대 촌락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함한희 2008, 21-25에서 재인용). 그러나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에서는 이러한 전체사적 관점에서 구술생애사를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생활사 연구가 계속 추진되고 관련 기록이 지속적으로 생산·축적될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와 기록도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와 같은 일상생활사 아카이브와 그 태생은 다르지만²⁾ 생활사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민속아카이브이다. 민속아카이브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으로만 남아 구비전승 되어오다가 필사본과 타이프원고들로 남겨진 민속자료나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암송하는 내용을 기록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일종의 전통생활사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속아카이브의 사례로는 유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1852년 독일 뉘른베르크에 세워진 독일의 역사 및 민속전문박물관인 독일민족박물관(Germanische Nationalmuseum), 스웨덴 옘살라에 있는 방언민속연구소(The In-

stitute for Dialect and Folklore Research), 아일랜드민속위원회(The Irish Folklore Commission)가 1935년부터 민속기록보존사업을 통해 구축한 아카이브, 1888년 이후 핀란드의 중앙 및 지방 여러 곳에 설립된 '민속자료보존소' 등이 있다(이정재 2004). 민속은 구비 전승되는 되는 경우가 많고 남아있는 자료들도 개인 소장가들이 분산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¹³⁾

3.5 분석 및 시사점

각 접근법별로 기록화 방식 및 수집기록물의 특징, 주로 제안하고 있는 아카이브의 유형, 학문적 배경 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한 경우에는 지역 내 기록소장기관들의 협력적 수집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다양한 기록화 사업과 연구들은 목적 및 해당 기록집합체의 특성에 따라 아카이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도시 및 공간계획 관점에서 축적된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architectural and urban spatial archives)를 제안하고 있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아카이브들이 운영되고 있다(유광흠 등 2008). 이러한 유형의 아카이브는 도시계획 업무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적

12) 유럽에서 민속아카이브는 근대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식민지 경영을 위해 타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국 문화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계몽주의가 끝나는 과정에 대두된 민족주의가 각국의 역사와 민속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그 결과 많은 민속아카이브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이정재 2004).

13)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민속아카이브'사이트는 개별 사진기록들을 소략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파편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민속 아카이브라고 보기 어렵다.

〈표 1〉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접근법	기록화 방식의 특징	수집 기록의 특징	운영체계 및 아카이브 유형	학문적 배경
지역사의 포괄적 기록화	- 지역 내 기록소장기관 참여 - 협력 수집 및 통합 검색을 위한 종합적 검색도구 필요	전 주제 분야 포괄	지속적인 협력 수집 체계의 유지	기록학
도시·공간 계획 관점의 기록화	- 사라져가는 공간의 이력 중시 - 역사성 있는 도시계획을 위한 활용성 고려	- 공간 기록과 장소 경험에 관한 기록 - 물리적 환경에 관한 이미지 및 영상 기록 중시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사진아카이브	건축/도시계획
공동체 기록화	- 공동체의 정체성 함양 및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접근 - 참여형 기록화 방식 중시 - 교육콘텐츠와 연계성 강조	- 이민자, 다문화 공동체가 생산에 참여 - 이주 후 지역 경험, 이주와 정착의 역사, 자신들의 뿌리에 관한 기록 -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민속자료	커뮤니티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사회학, 인류학
생활사의 기록화	- 미시사 관점에서 주변부 집단의 일상생활사를 기록 - 전통생활사의 기록	- 구술사 비중이 큼	생활사 아카이브, 민속아카이브, 구술 아카이브	사학, 인류학, 사회학

극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용기록관리 시스템(토지정보시스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공공기록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건축가나 설계사무소 기록 등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축적, 개발로 사라져가는 지역에 대한 원주민들의 장소 경험과 기억의 기록화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이 포섭해야 할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수집단이나 비주류 공동체들은 자긍심과 연대의식, 정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스로 기록을 수집·생산하는 운동을 통해 혹은 관련 연구자나 활동가들의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된다. 이렇게 구축된 아카이브는 디지털 아카이브나 더 나아가 물리적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로 발전하게 된다. 한편 마을 공동체의 경험과 생활을 기록하고, 전통과 문화유

산을 발굴, 보존, 활용하기 위한 마을 아카이브(village archives)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서 있다.

한편 개인 생활사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를 남기지 못한 일반인, 소외계층의 일상생활사 기록의 수집과 보존,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사 아카이브(everyday life history archives)가 있는데, 구술 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아예 구술 아카이브로만 구축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사 아카이브와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였지만 민속 아카이브(folklore archives)도 수집된 기록집합체의 범주가 생활사 아카이브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로컬리티 기록화의 범주를 설정할 때 이러한 아카이브들이 포괄하는 기록집합체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기 다른 관점에서 추진되는 아카이브들 간의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은 아카이브(기록집합체)가 실험적으로 구축되거나 연구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므로 각 영역별로 아카이브 구

축을 위해 각개약진을 해야 할 것이며, 한편에서는 지역 거점을 토대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로컬리티 기록화 방안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것은 기록화의 범주 설정과 로컬리티가 담긴 기록을 생산·수집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성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해 장소나 공간, 공동체를 중심으로 개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4.1 기록화 범주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예술, 건축, 산업, 교육, 환경·자연자원, 노동, 의료·보건, 정치, 인구, 여가, 종교, 과학기술, 언론, 교통 등 지역사와 관련된 모든 하위주제를 기록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망라적인 기록화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여러 사례들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특히 지역의 도서관이나 지방기록관리기관에서의 민간기록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환경에서는 더욱 적용하기 어렵다.

로컬리티 기록화에서는 우선 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록화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로컬리티는 일정한 공간이나 지역 범주를 기반으로 형

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장세룡과 공윤경(2009)은 탈근대 도시공간의 층위를 주체, 정치경제, 도시경관으로 구분했는데, 이를 로컬리티 기록화 관점에서 해석하면 사람이나 공동체 및 조직(주체),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공간의 모습(도시경관)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의 수집·생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도나 사진 등으로 표현되는 공간의 물리적 변화, 공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공동체)의 이력, 그러한 변화와 이력에 영향을 미친 정책과 사건, 공동체의 장소경험과 집단지역의 핵심을 이루는 축제나 행사 등을 우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록화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은 우선 지역 내의 의미 있는 장소와 공동체를 선별하는 작업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록화를 위한 장소 선정의 기준으로 유광흠 등(2008, 75-76)은 첫째,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 둘째,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적절히 기록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공간, 셋째, 도시개발로 인해 미시적 공간변화가 이루어져 공간의 변화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 넷째, 가까운 미래에 공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 기록 구축 시 효용이 상대적으로 큰 공간, 아울러 장소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등을 제안하였다.

앞서 분석한 다양한 접근법과 위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로컬리티 기록화 범주 설정을 위한 원칙과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 내 공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화를 추진한다. 이때 수집·생산할 기록은 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1차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언론자료, 논문, 문화예술적 표현이 포

함된 자료 등의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보완하는 역할로서만 고려한다. 둘째, 장소의 선정은 장소경험과 집단기억이 많이 축적된 곳, 공간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거나 예상되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지역 내 장소경험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인물과 공동체를 확인하고 선정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해야 할 기록의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및 장소의 물리적 변화에 관한 기록을 수집한다. 둘째, 공간 및 장소의 물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책에 관한 기록을 수집한다. 셋째, 지역과 관련된 공동체 및 집단의 기록을 수집한다. 그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관련이 있는 집단과 개인이 포함된다. 넷째,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들의 장소 경험에 관한 기록을 수집·생성한다. 여기에는 장소와 공동체의 관계가 표출된 경관 및 문화적 요소들도 포

함된다.¹⁴⁾ 공동체의 집단기억이 내재된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이 포함된다.

가령 '부산항'이라는 장소를 기록화할 때 우선 부산항의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한 후 변환점이 된 주요 사건별로 기록화를 시도할 수 있다. 부산항의 역사와 관련하여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는 주요 사건은 매축이며 이를 사례로 기록화 전략을 세우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2>는 맥락조사에 해당하고 <표 3>은 수집·생산되어야 할 기록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4.2 로컬리티 아카이브의 구축

로컬리티 기록화와 관련하여 고려할 핵심 사항은 기록을 생산·수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지역이나 공동체 기반의 아카이브를 구축한 사례들은 무척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대단히 다양

<표 2> 부산 북항 매축 관련 맥락조사 개요

부산 북항은 1902년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1905년 경부선 개통, 관부연락선 취항, 압록강 철교와 安奉線 공사 마무리로 인한 일본과 대륙을 연결해야 하는 군사 전략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부산에 살던 일본인에게는 옛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 거주지의 팽창 욕구 때문이었다.

공사는 1902-1905년, 1907-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담당회사는 부산매축주식회사였고, 일본의 대표적인 정장인 大倉喜八郎였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오쿠라의 토목회사였던 大倉組가 낙찰받아 시모노세키의 藤勝組가 시공하였다. 사역 인부는 1일 평균 일본인 약 2천명, 조선인 약 9백명이었다(다른 자료에는 일본인 50명, 조선인 6-7백 명).

북항 매축지에는 1905년 池之町, 高島町, 埋立新町, 中ノ町, 大倉町, 岸本町이라는 행정명이 부여되었다. 매축회사의 간부들 이름을 사용하였다. 1927년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대부분 회사 창업주 오쿠라의 이름을 사용한 대창정으로 통일되었다.

매축지에는 주거지보다는 공공시설, 상업시설, 항만시설 등이 등장하였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전철, 부산역, 부산세관, 부산우체국 등이, 상업시설로는 창고, 여관, 정미소, 해운회사 등이, 항만시설로는 제1잔교(1913년), 제2잔교(1917년)가 각각 설치되었다.

자료: 차철욱(2011)에서 내용 추출.

14) 렐프(2005, 87)에 따르면, 장소와 공동체의 관계는 경관에 표출되며 모든 경관 요소들은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 즉, 건물, 거리, 퍼레이드, 마을 축구팀,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단결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드러낸다고 한다.

〈표 3〉 기록화 유형과 사례

기록 유형	기록되어야 할 내용	사례(부산항 매축)
공간	공간의 물리적 변화 이력	- 부산항지도, 사진, 공사도면
정책	지역의 공간과 공동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정책	- 공문서 및 전신(일본외무성사료관) - 관보, 시보 - 조약, 협약
주체	지역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했거나, 반대로 기록을 남기지 못한 주변부 집단이나 개인	- 부산매축주식회사(기업기록) - 부산거류민단(단체기록) - 부산매축주식회사 창업주 오쿠라(기업기록/개인기록) - 부두노동자(개인기록 및 구술) - 노점상(개인기록 및 구술)
장소 경험	개인이나 집단과 장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각종 행사와 활동, 개인의 장소 경험	- 장소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각종 행사와 활동, 문화활동을 다룬 기록 - 신문, 잡지 등 언론자료 - 문학작품(내부인과 타자의 장소경험)

자료: 유형별 사례는 차철욱(2011)에서 추출하여 재구성

하다. 그러나 로컬리티 아카이브는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 내외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들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포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정 장소나 공동체와 관련하여 개별 아카이브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발굴될 기록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미 산출된 기록물, 기록유산기관이 이미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포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 포털의 사례로는 영국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범국가적 비영리 단체인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의 웹사이트¹⁵⁾ 영국 버밍햄 지역의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대한 통합 검색을 지원하는 Connecting

Histories,¹⁶⁾ 영국 웨일즈 지역의 수많은 커뮤니티 유산 그룹들이 생산, 관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Community Archives Wales,¹⁷⁾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역을 대상으로 기록 컬렉션의 통합검색을 지원하는 MemoryBC 사이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소장기록은 물론 캘리포니아 전역의 150여 개의 도서관, 아카이브, 역사협회,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차 자료에 대한 통합검색 및 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Online Archive of California,¹⁸⁾ 지역사 관련 기록에 대한 게이트웨이이면서 이러한 역사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이를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Calisphere¹⁹⁾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 포털들은 대체로 기록원본을

15)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
 16)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
 17) <<http://www.ourwales.org.uk>>.
 18) <<http://www.oac.cdlib.org/>>.
 19) <<http://www.calisphere.universityofcalifornia.edu/>>.

소장하고 있지 않으나 지역의 기록컬렉션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기록컬렉션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디지털화된 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디지털화와 기술(description)은 포털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작업해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류체계 등을 통해 재맥락화하고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것은 포털의 역할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로컬리티 아카이브 혹은 포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내 기록컬렉션의 통합 검색을 지원한다. 지역의 기록유산기관(도서관, 문화원,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소장한 기록컬렉션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집합적 기술을 제공한다. 파악된 기록컬렉션에 대한(재)맥락화를 통하여 지역 및 지역사의 이해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특정 장소나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생산된 기록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집합적 기술을 제공한다. 가령, 부산 달맞이고개나 산복도로 관련 사진 기록화 작업,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들(일명 ‘자갈치 아지매’)의 구술 기록 등의 소재를 파악하고 장소 및 공동체에 대한 맥락 정보와 함께 기록에 대한 집합적 기술을 제공한다.

셋째, 지역사 학습 및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이를 지원한다.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 및 공동체의 역사 교육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포털에 참여할 개별 아카이브가 제대로 구축되려면 지역 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동호인 집단 등이 자신들의 기록을 생산하고 협력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American Memory Project와 같은 지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미 구축된 아카이브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기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형 아카이브 기능을 구현한다.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와 이용자들이 기록의 평가는 물론 기술, 콘텐츠 개발 등의 프로세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과거에 생산된 지방기록(보존기록) 가운데 유의미한 지역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기록은 과거의 사기록이나 구술기록, 또는 현재와 미래의 지방행정(자치) 기록들이다. ... 지방기록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치가 떨어지는 과거기록을 비싼 공간과 시설에 잘 모셔 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공적 기록을 많이 생산하여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는 유실되거나 흩어져 있는 가치 있는 지방기록(특히 구술기록)들을 잘 수집하고 정리(네트워킹)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수결 2009)

기록을 만들어 보존하는 것은 당대의 기억과 역사를 후대인들에게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는 아키비스트들이 고민해야 할 주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록관리나 정책의 틀에 갇혀

서는 풀 수 없다. 물론 공공정책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집단기억을 기록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장소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화를 추진하는 문화운동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아직 한 곳도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언젠가 이들 기관이 만들어져 지방에 대한 체계적 기록화를 추진하게 될 것을 막연히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선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이 민간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기록화 실험사업을 꾸준

히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록원 등은 지방의 균형 잡힌 기록화 전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사업은 물론 지역 내 공동체의 기록화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로컬리티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아카이브가 집단과 개인의 기억이 만나는 곳,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이 만나서 지역의 전체상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지역민들이 능동적으로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주관. 2008. 민속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민속연구』(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7: 33-52.
- 김주관. 2006.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447-483.
- 김주관. 2005.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1): 217-249.
- 남신우. 2003. 지방기록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방안: 안산시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렐프, 에드워드. 2005. 『장소와 장소상실(=Relph, Edward. 1976. Place ad Placeness)』.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서울: 논형.
- 박규택. 2009. 로컬의 공간성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 사회·역사 구성주의 관점. 『한국민족문화』, 33: 159-183.
- 박순철. 2008.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과 활동: 20세기민중생활사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영남학』(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4: 35-61.
- 박주석. 2010. 만안구 재개발과 도시기록 아카이빙의 필요성. 『2010 만안의 이미지 '기억과 기록' 자료집』. 경기도 만안구.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심재휘. 2011. 황동규 초기 시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 『우리어문연구』, 39: 437-462.
- 양홍숙. 2011. 부산 로컬리티 탐구: 『디지털부산 역사문화대전』을 중심으로. 『제1회 SKK 로컬리티의 기록화 컬로퀴엄 자료집』, 21-37.
- 엄수진. 2010.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농촌마을

- 계획의 마을조사 분석 연구: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마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엄수진, 박소현. 2010.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본 마을 단위 문화유산 기록화 연구: 인천 차이나타운 마을 아카이브 시범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57-266.
- 옥한석. 2010. 사진 미디어에 의한 장소성의 재현. 『로컬리티 인문학』, 4: 247-264.
- 올릭, 제프리 K. 저. 2011. 강경이 역. 『기억의 지도』. 서울: 옥당.
- 유광흠 등. 2008.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동후. 2007. 도시공간 이미지의 재구성: 이동성, 연결성, 그리고 디지털 사진의 상상적 지리에 관한 탐색적 고찰. 『언론과 사회』, 15(4): 123-155.
- 이정재. 2004. 민속아카이브와 문화정책. 『한국민속학』, 40: 67-107.
- 이 푸 투안. 2005. 구동회 외 옮김.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 장세룡, 공윤경. 2009. 탈근대 도시성(Postmodern Urbanity)의 탐색: 부산의 도시성 이해를 위하여. 『한국민족문화』, 34: 335-368.
- 지수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247-281.
- 차철욱. 2011. 근대 부산의 시가지 변화와 로컬리티: 로컬리티 연구와 기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제3회 SKK 로컬리티의 기록화 콜로퀴엄: 근대 부산의 공간변화와 로컬리티 기록화』 발표집, 3-13.
- 최윤진. 2011.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희. 2008.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61-74.
- 함한희. 2008. 생활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활용. 『영남학』(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4: 7-33.
- 함한희 등. 2008.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민속학연구소 엮음. 서울: 민속원(민속연구제17집).
- Burton, Antoinette. 2001. Thinking beyond the boundaries: Empire, feminism and the domain of history, *Social History* 26(1), 66(Cunningham 2005, 24에서 재인용).
- Brothman, Brien. 2003.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 Brothman, Brien. 1999. Where's Home? Documenting Locality at the Dawn of the Electronic Age. *Archivaria*, 47: 151-157.
- Cox, Richard J. 1996.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anham, Md., & London: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67.
- Cunningham, Adrian. 2005. Archival Institutions. In: *Archives: Recordkeeping in so-*

- ciety, ed. by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2005(Topics in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No. 24), Ch.2. 21-50.
- Derrida, Jacques. 1996. *Archive Fev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90. (Cunningham 2005, 21에서 재인용).
- Duranti, Luciana. 1990. "So, what else is new?: the ideology of appraisal yesterday and today." In Christopher Hives, ed., *Archival Appraisal: Theory and Practice*. Vancouver: Univ. of British Columbia 1990, p.2(Cox, Richard J. 1994.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archival appraisal principles: a different perspective, *Archivaria* 38(Fall 1994): 11-36에서 재인용).
- Flinn, Andrew. 2007.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2): 151-176.
- Jimerson, Randall C. 2003. Archives and memory. *OCLC Systems & Services*, 19(3): 89-95.
- Josias, Anthea. 2011. Toward an understanding of archives as a feature of collective memory. *Archival Science*, 11(1-2): 95-112.
- Ketelaar, Eric. 2008. Archives as Spaces of Memor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9(1)(April 2008): 9-27.
- McKemmish, Sue. 2005. Trace: Document, record, archive, archives. In: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ed. by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2005(Topics in 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No. 24), Ch.1 1-20.
- Schwartz, J. and Terry Cook.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 1-19.